마사이(Maasai) 목동과 핀테크

고 낙 훈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 finance + technology)[1]가 우리를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먼저 금융산업 대표주자인 은행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은행에서 여유자금을 저축(예금)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지급·결제)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송금)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았다.

『뱅크 3.0』의 저자인 브렛 킹(Brett King)은 은행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하는 무엇"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우리는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다.

산뜻한 은행지점과는 사뭇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케냐 세링게티 마사이족(Maasai) 양치기는 이미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거나 양모수집업자로부터 양털 수확대금을 받고 있다(the Economist, 2015.5월 FinTech 특집호). 중국인들도 핸드폰에 깔린 "알리페이(Alipay)"앱으로 간편하게 가족모임 만찬을 결제한다. 이들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도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가스비나 관리비를 납부하며 부모님 용돈이나 친구 결혼 축의금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EY(Ernest&Young)는 "핀테크 도입지수 2017"에서 중국 1위, 영국 3위, 미국 10위, 한국 12위 순으로 랭킹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 보급된

1)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근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최신자료는 핀테크를 다음과 같이소개하고 있다. FinTech covers digital innovations and technology-enabled business model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Thomas Philippon, "The FinTech Opportunity" BIS, working paper No.655, 2017. 8.]

신용카드가 너무나 잘 정착되어 모바일 결제 활용이 더디지만 마사이족과 중국인들은 유선통신 단계를 건너뛰어 곧바로 무선통신을 활용한 금융을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한 국내 케이뱅크(2017. 4월)와 카카오뱅크(7월)는 지점을 없애는 대신 절약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기존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 높은 예금금리 그리고 낮은 대출이자율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독일의 인터넷전문은행 Fidor Bank의 경우 지점없이 40명의 직원으로 30만 고객(2015년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객이 이 은행을 페이스북(facebook)에서 동료나 친지에게 "좋아요"로 많이 추천할수록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은행은 대출을 위한 고객신용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 친구하기의 생활패턴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등 기존 은행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금융이 활발해지기 전에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격미달로 은행계좌를 열지 못하는 가계가 전체의 25%에 달하였다. 하지만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애플(Apple)과 같은 유통·IT업체가 그들의 플랫폼(platform, 소비자·기업 등이 재화·서비스를 사고팔거나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장터")에 상품대금 결제의 편의를 위해서 금융서비스를 통합·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은행이 맡아온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기존 은행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유통·IT업체 플랫폼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일부 보안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사이버 해킹방지와 결제정보 부정사용 방지 보안기술이 미국 은행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한다.[2)]

한편, 핸드폰 앱(app)은 웨어러블 기기(wearable, 몸에 착용하는 무선기기, 팔찌·양말 등)와 연동하여 맥박 등 신체상태를 수시로 측정하여 생활습관 교정에 대하여 조언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웨어러블로 맞춤형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체활동 데이터 제공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InsurTech: Insurance + Technology). 보험계약자의 운동습관, 식습관 또는 운전습관을 전송받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장기입원이나 교통사고에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절감하고 그 일부를 보험료 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기존 사후적 치료중심의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실현하는 의료계·자동차업계와 금융업계간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2) 미국 JP모건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이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것이다. 해외 보험사는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온라인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시스템)가 이전까지 없었던 낮은 수수료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적절한 시점에 보유자산을 증권에서 금·구리 등의 원자재로 갈아타도록 조언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주식,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어떤 자산이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일반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전성과 편리성의 장점을 가진 자율주행차에 비유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가 졸음운전, 과속 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로보어드바이저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는 투자자가 선호할 수 있는 상품 추천에 강점이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미국 5개 자산운용사의 연간수익률이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블록체인(Block-chain) 보안기술이다. 최근 코스닥의 일일 거래대금액보다 많은 거래금액을 시현한 비트코인을 구현한 핵심기술이 블록체인이다. 기존 지급결제에는 은행처럼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였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중앙은행이나 증권거래소라는 특정 중개이관의 중앙서버에 보관하는 대신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공동으로 기록하고 검증·관리하게 하여 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전용선 구축·해킹방지 시스템 유지와 같은 보안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블록체인은 해외송금, 증권거래와 관련된 기존 중앙집중적 금융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국가에서 이미 소유권 등기, 공증 등 일반 계약에까지 활용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핀테크는 전통적 금융을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은행의 경쟁으로 대출이자율이 낮아지고 예금금리 우대를 받게 되었으며, 일대일 맞춤형 보험서비스가 예방적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증권 투자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예전에 없었던 금융보안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어두운 면도 있다. 최근 일부 국내은행의 종이통장 발급중단 추진과 관련하여 노년층에서 익숙한 종이통장의 지속적 사용을 요구하는 헤프닝이 있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도 아날로그 서비스 창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보험업계와 제약·의료계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수익만을 위해 불법적으로 민감한 의료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생활 보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사고위험을 세세하게 실시간 분석하여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게 되면 고위험 소비자군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가입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변동성 확대를 초래하거나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처의 발굴보다는 로보어드바이저간 경쟁만 팽배해 질 수 있다.

핀테크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 논의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핀테크 시장참여자의 신규진입을 위하여 기존 금융회사 규제 방식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규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포털·통신업체의 은행 자본 진입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규제(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법 개정사항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보험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요율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해 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 관련 법규 정비와 의료정보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로보어드바이저도 그 자체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과연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입만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익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야 한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존의 중앙집중적 보안기술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해외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미리 파악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와 지원이 무척 중요하다. 영국은 이미 금융혁신을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핀테크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금융소비자보호청(FCA)은 핀테크 창업기업의 금융규제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핀테크의 금융규제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핀테크가 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신기술 시험무대, 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가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 적용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며 해당 금융서비스를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호주, 싱가폴, 캐나다 등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의 입법화를 위한가칭 금융혁신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2017. 9. 8.) 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키우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전통 업태별로 짜여진 생태계와 규제망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관건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금융당국의 책임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지켜보며 그 싹을 키우려는 정책 그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최고의 용의주도한 제도마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창업하려다 법률 전문가 되어 버렸다"는 세간의 우스개 이야기는 균형잡힌 법적지원과 제도인프라를 갈망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일 것이다.